

지역 인구 2월에만 2천명 떠났다...타지역 이탈 진행형

국가데이터처 '국내 인구이동 통계'

광주 순유출 1천287명 집계
전남 841명 지역 이탈 가속
고령화 영향 속 감소세 축소

지난 2월 광주·전남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순유출 흐름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총 전입자는 1만5천665명, 총전출 1만6천952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를 크게 웃돌며 1천287명이 순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순유출 규모(1천449명)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수치다. 광주의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22년 1월 총전입 1만4천985명, 총전출 1만4천907명으로 78명이 순유입된 이후 약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1천515명을 시작으로 11월 1천148명, 12월 2천23명, 올해 1월 1천130명에 이어 2월에도 1천287명을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매달 1천명 이상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인구 유출 규모는 광주보다 상대적으로

로 적었지만 역시 순유출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2월 전남은 총전입 1만5천733명, 총전출 1만6천634명으로 841명이 순유출돼 지난해 같은 달(-767명)보다 유출 규모가 다소 확대됐다. 다만 전남은 순유입과 순유출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총전입 1만6천233명, 총전출 1만6천312명으로 79명이 순유출되며 두 달 연속 순유출 상태다. 전국적인 인구 이동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61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4년(60만6천명) 이후 3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인구 이동 감소는 장기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이동자 가운데 시도 내 이동은 60.7%, 시도 간 이동은 39.3%를 차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5.7%로, 전년 동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하며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순이동 결과에서는 경기(4천428명), 서울(4천227명), 대전(913명), 인천(871명), 충남(479명), 충북(430명), 부산(157명)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했고 경남(-3천454명), 경북(-2천11명), 울산(-1천410명), 광주(-1천287명) 등 10개 시도에서는 순유출 현상이 이어졌다. /안태호기자



나들이철 선글라스 장만하세요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봄을 맞아 25일 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에 선글라스 팝업을 열어 고객이 상품을 착용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상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호남권 지원센터' 선정

3년 연속...호남권 거점 지원센터 역할
광주·전남·전북·제주 청년 일경험 확대

광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공모에서 호남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번 선정으로 2024년부터 3년 연속 호남권 거점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경력 중심의 실천형 인재를 선호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호남권 지원센터는 ▲일경험 참여기업과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직무 특화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사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권역 내 기업 현장의 일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상의는 지난 2년간 참여기업 184개사와 운영기관 28개소를 발굴하고, 호남권 거점 대학 및 고용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실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무 분야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참여기업 발굴과 맞춤형 컨설팅, 운영기관 지원,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연계하여 지역 기업과 청년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재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호남권은 청년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좋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일경험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민간 중심의 일경험을 활성화하고 청년에게는 취업 역량을 높이고, 기업에는 적합 인재 발굴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mismatch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한전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개최

오는 4월1일-5월31일 신청

에너지 소비 절약 문화 확산 기대

한국전력은 25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전과 4개 기관(사) 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 협력해 추진한다. 참여기관들은 각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한전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150개 기업의 자발적인 참

여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10.3GWh의 전력을 절감했는데 이는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약 1천500t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국가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전은 이러한 성공 모델을 문화계로 넓혀 올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소속 공연장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노력을 유도하고,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과 함께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참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소속 공연장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한전기협회 누리집(www.kea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채만기자

신용회복위-광주자활센터 업무 협약...사회취약계층 취업 돕는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는 25일 "전날 광주광역시자활센터를 비롯한 광주지역 9개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실업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채무조정)과 고용지원(자활근로)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 자 중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맞춤

형 채무조정 상담과 신용교육 제공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자활센터의 일자리 사업 및 맞춤형 직업 훈련 정보 연계 ▲금융·고용·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소외계층을 공동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양 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태호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FM 98.1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